

중장년층도 “나는 솔로”... 광주·전남 독거중년 20% 돌파

2021년 40~64세 1인 가구 18만여명... 1년새 1만5천명 늘어 광주 21.1%·전남 21.9%... ‘남과 사는’ 중장년 2만6000명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중장년층(만 40~64세) 1인 가구가 광주·전남에서만 1년 새 1만50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부담이 가중되면서 남남이 함께 사는 중장년층 비친족 가구원은 5년 새 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전남 만 40~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8만4133명으로, 1년 전보다 9.0%(1만5198명)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남남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년 새 9.6%(9581명) 증가했고, 여자는 8.1%(5617명) 늘었다.

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는 2016년 15만명을 넘었고, 이후 5년 새 22.7%(3만4006명) 급증했다. 이 기간 남자 1인 가구 증가세(26.1% ↑)가 여자(18.0%)보다 가팔랐다.

지난 2021년 광주 중장년층 1인 가구는 8만1334명으로, 전년보다 9.7%(7161명) 늘어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1년 새 8.5%(9만4762명→10만2799

명)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6.9%)을 웃돌았다.

전체 중장년층 가구(광주 38만5775가구·전남 46만8497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1.1%·전남 21.9%로 나타났다.

중장년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혼자 사는 셈이다.

특히 광주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은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허리 세대’로 불리는 40대 1인 가구는 광주·전남에서 1년 새 4000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21년 지역 40대 1인 가구는 6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6.6%(3738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1년 동안 남자 1인 가구는 6.7%(2561명), 여자는 6.3%(1177명) 늘었다. 광주·전남 남자 1인 가구(4만516명)는 여자(1만9779명)의 2배 넘는 수준이다.

가족이 아닌 남남이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5인 이하)를 꾸리며 새로운 가족관을 정립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다.

광주·전남 40~64세 비친족 가구원은 2020년 2만4302명에서 이듬해 2만6127명으로, 7.5%

(1825명) 증가했다. 5년 전인 2016년(1만6404명)보다는 59.3%(9723명) 급증한 규모다.

중장년 비친족 가구원은 전남(1만7051명)이 광주(9076명)의 1.8배 수준으로 많았다.

중장년층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가계 살림과 연관 있다.

연 소득이 1000만원이 안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지역 중장년 인구는 광주 24만1500명·전남 32만8200명으로, 전체 중장년 인구에 대해 각각 42.0%·47.7% 비중을 이뤘다.

중장년 평균 근로소득은 2021년 기준 광주 3680만원·전남 3399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4%(121만원)·1.9%(64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광주·전남 중장년 근로소득은 통계를 낸 2016년부터 해마다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2021년 소득 증가율도 전국 평균(5.4%)을 넘지 못했다.

중장년층 별이는 짚금 올랐지만, 부채 상황은 1년 새 눈에 띄게 악화했다.

중장년 연령대에서 대출을 낸 사람들이 대출 규모 순으로 쭉한 줄로 선다고 할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빛(대출잔액 중앙값)은 광주가 5796만원으로, 전년보다 15.9%(796만원)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11.6%)을 훌쩍 넘을 뻔던데 서울(18.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 중장년 대출잔액 중앙값은 4288만원에서



지난해 9월 열린 광주시 일자리 박람회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4617만원으로, 7.7%(329만원) 늘었다.

집이 없는 무주택 중장년층 비중은 2021년 기준 광주 54.3%·전남 57.0%에 달하며, 집이 있더라도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전국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지닌 중장년층 비중은 35.7%로 나타났지만, 광주·전남은 각각 21.6%와

9.0%에 머물렀다.

이처럼 광주·전남 중장년층의 자산 구조가 취약하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이 아예 없는 비중은 광주 23.2%·전남 25.0%에 달해 노후 대비를 서두를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중기 설 자금 3000억 긴급지원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3000억원을 신규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특별자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고려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서둘러 진행한다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자금, 긴급 결제자금 등에 쓰인다. 대출 지원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신규 대출 말고도 상황 만기가 도래한 3000억원의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업체당 50억원까지 대출되며 산출된 금리 대비 최대 0.7%포인트 우대 금리를 줄 계획이다.

고병원 광주은행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년간 집값 10% 넘게 떨어지면 광주 10건 중 2건 ‘깡통전세’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빌라왕’ 사태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2년간 집값이 10~20% 떨어지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광주지역 전세계약 10건 중 2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게재된 민병철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에 이어 지난해 1~9월 6466억원으로 전년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기준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해 주택 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 1), 10~20% 하락(시나리오 2)할 때 만기 도래 전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

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총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12.2%였다.

시나리오2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의 깡통전세는 무려 19.3%로 10건 중 2건에 달했다. 전남도 16.9%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 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면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채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고객 마음대로 선물 바구니 만들어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2023년 설 선물 본 판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기간 원하는 과일과 포장 유형을 골라 선물용 과일 바구니를 주문·제작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더 어두워졌다

내수·수출 등 전반적 하락세

설레고 희망이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연초부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2~19일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IH)는 77.8(전국 평균 77.7)로 전월(86.4) 대비 8.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2)에 비해서도 5.4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 8월(78.0) 이후 5개월 만에 80 아래로 하락, 전월 대비 하락의 폭이 컸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월(86.6) 대비 9.6포인트 하락한 77.0로 전망됐다. 전남은 전월(86.1) 대비 7.4포인트 떨어진 7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77.0로 전월(88.2) 대비 11.2포인트나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8.6로 전월(84.5) 대비 5.9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은 내수판매(89.1→76.8), 수출(94.6→84.0), 경상이익(83.9→78.5), 자금사정(77.5→73.4)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8.3→97.1)만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된 경영예로(복수응답) 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4.6%)을 꼽았고, 이어 '내수부진'(48.8%), '인건비 상승'(48.8%),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39.0%)이라고 응답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연초부터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전망을 어둡게 내다본 것은 설 명절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무엇보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커졌고,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중소기업에 안팎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신보 '재기 지원' 전국 1위 달성

전남신보보증재단은 '2022년 재기 지원 우수재단 선정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희망디딤돌'이 되기 위해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증 지원 ▲교육·컨설팅 ▲채권 소각 등 모든 분야에서 17개 보증재단 가운데 최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증 지원 부문에서는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한 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사업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줬

다. 특히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은 실패 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보증 공급량이 전년 대비 2.2배 급증했다.

교육·컨설팅 부문에서는 실패한 사업자-예비창업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한해 21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해 만족도 역시 94%로 매우 높았다. 이와 함께 전남신보는 지난해 부실채권 748건, 73억원을 소각하며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하고, 667개 업체를 최종 구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품값 연초부터 '들썉'...5~10% 인상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64.65(+8.67)
↓ 코스닥	679.92(-3.75)
↑ 금리(국고채 3년)	3.644(+0.012)
↓ 환율(USD)	1269.40(-2.30)

올리겠다고 지난해부터 예고해왔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도 지난 2일 인기 모델인 서브마리너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6%가량 올렸다.

'서브마리너 노네이트'는 1142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서브마리너 데이트'는 콤팩트 기준 1881만원에서 2003만원으로 각각 2.4%, 6% 상승했다.

에르메스 가격 인상을 인상한 만큼 샤넬과 루이비통도 상반기 내 가격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샤넬의 경우 지난해 1월, 3월, 8월, 11월 네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10월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연합뉴스

연초 명품 가격이 잇따라 올랐다.

5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전날부터 의류, 가방, 신발 등 제품 가격을 5~10% 인상했다.

가방 '가든파티 36'은 498만원에서 537만원으로 7.8% 올랐고 '에블린'은 453만원에서 493만원으로 8.8% 상승했다. '린디26'은 1023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7.5% 올랐다.

에르메스는 매년 1월 가격을 인상하는데 경쟁업체 대비 인상 폭이 작다는 이유로 올해 가격을